**운젠 온천 역사 탐방 코스： 만묘지**

불교가 일본에 전래되고나서 약 150년 후인 701년, 행각 중이었던 승려 교기(行基) (668년-749년)가 운젠에 와서 산에 불교 사찰 한 채를 지었습니다. 이 사원과 그 밖의 종교적 건물들은 16세기 후반 시마바라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파괴되었으나, 만묘지는 최초의 절 직계로서 깊은 역사를 지닌 절입니다.

절 안에는 1917년에 완성된 ‘운젠 대불’이라 불리는 높이 5미터의 5층 순금박 석가여래가 진좌하고 있습니다. 절 앞에는 교기의 묘라고 전해지는 묘석이 있습니다. 또한 절 위에 있는 공원에는 큰 교기 입상과 시코쿠 88개소 순회를 본뜬 미니어처 버전으로서 88개의 독특한 석불이 있습니다. 이것은 먼 시코쿠에 참배하러 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당시 주지 스님이 시코쿠를 돌며 얻어 온 모래를 각 석불 아래에 묻어 건립한 것입니다.